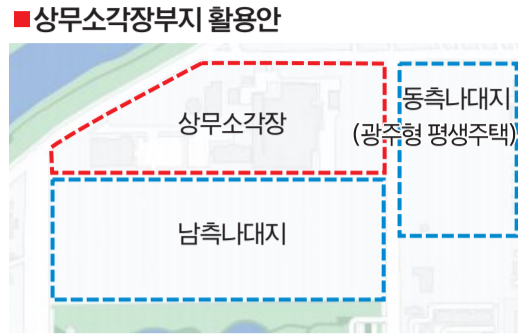


# 상무지구 아파트 주민들 “약속 어긴 광주시 감사 받아야”

### 소각장 폐쇄 후 학교시설 신축 대신 임대주택 추진 반발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환경개선부담금 80억 반환 요구 열병합 발전소 무산 따른 난방비 손실액 400억 촉구도 도시공사 “제안 사항이었을 뿐”...광주시 “해결책 강구”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후 주민들과 약속한 상무소각장 인근 완충지역에 학교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와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주민들 상대

로 서명요청 안내문을 걸고 서명을 받는 등의 집단 행동에 나섰다. 서명요청문에는 크게 2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상무소각장 준공에 따라 아파트 세대별로 지급한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의 반환과 열병합 발전소 무산에 따른 개별 난방(도시가스)비용 손실액 40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8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지난 1995년 상무지구를 개발할 당시 지구 분양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것으로 상무지구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됐다.  
100만㎡ 이상 규모의 지구단위를 개발할 때 지구 단위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



장 건설이 가능하며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무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해야 하는데도 상무소각장은 2001년 가동부터 광주시 전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300~400t씩 소각한 만큼 환경부담개선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400억원에 달하는 손실비용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한 열을 재활용하는 열병합발전으로 상무지구 인근 14개 아파트와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난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무산되면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16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만든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광주시도시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달 17일 주민지원 협의체에 '당시 만들어진 계획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을 뿐 언급된 모든 제안 내용에 대해 준수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동측 유보지는 지난 2014년에 주택부지로 용도가 변경돼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도시공사의 입장이다. 결국 주민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22일 현재 3000여명이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산출한 보상 금액에 대해 검토 중이다"면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이정선 교육감 '새로운 광주교육' 탄력

### 광주교육청, 진로진학과 신설 등 조직개편 조례안 가결

민선 4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2023년 3월 1일 자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28일 본회를 통과하면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새로운 광주교육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 4기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정책과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다양성을 갖춘 실력 광주" 실현을 위해 분청 각 과를 새롭게 재편 또는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진로진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꿈을 찾고 다양한 실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교육기획과'도 신설한다.  
직속기관 체계도 개편한다.  
광주송정도서관 명칭을 '광주송정다문화도서관'으로 변경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광주학교시설지원단을 폐지하는 대신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 등에 광주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낼 방침이다.  
이 밖에 분청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포용교육에 모든 역량을 쏟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합격을 위해

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실기시험이 2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한 수험생이 트랙을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대학 무상교육 전남운동본부 24일 출범

대학 교육 무상화와 평준화를 주장하는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운동본부'가 24일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들어간다.  
이 단체는 학생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소멸하면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연합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학 서열제 해소 방안으로 단계별 대학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학부모연합회 등 전남도내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중앙 조직인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는 2020년 11월 출범해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본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전남운동본부 측은 22일 내용은 출범 선언문에서 "비싼 대학교육비 제도와 망국적인 대학 서열 체제를 종식하고 대학 무상화·평준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삶을 황폐화하는 줄세우기식 입시제도를 청산하고 대입 자격고사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대학혁명, 교육혁명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 24일~내달 2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이수학점(12학점 이상)과 성적(B학점·80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대

학생이 대상이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 전체 10구간중 8구간 이하 학생들이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까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제공하며 9구간 학생들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만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